

사람들이 언제나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개있다.

하나는 술, 또 하나는 담배이다. 술과 담배는 기호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술과 담배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것에 비해, 담배는 피우는 사람 뿐만아니라 옆의 사람 에게 직접 ·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싫어한다.

나는 담배연기가 있는 곳에 가면 숨을 쉴수 없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옷에 담배 냄새가 났다.

모두 알고 있는 것 처럼, 담배는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

담배를 피우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옆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또 담배 불은 화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적당한 술은 약이 된다는 말은 되어도, 담배가 약이 된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안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단지 담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피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